

새만금 지역 개발·기업 투자 빨라지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도 '탄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개발이 촉진되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의 토대가 마련됐다.

전북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중인 사항을 새

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임입을 고려해 이 법 시행 전 임주했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가 이원화 돼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 애로사항으로 작용해왔다.



최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복로 466 일대로 이전한 새만금청사. (새만금청 제공)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게 돼 국내외 기업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새만금사업지역 외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됐다.

이와함께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SOC) 확충 등이 연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민간 투자와 함께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대회는 'Draw your Dream'이란 주제로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12일간 168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진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특정 동창회에 편의 제공 장흥군수 등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검찰에 고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동창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행한 업무추진비 적법성 논란(광주일보 11월 26일자 12면 보도)을 빚어온 장흥군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장병실)는 10일 장흥군청 비서실장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 기부행위제한)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정중순 장흥군수를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여부를 가려달라며 김 실장과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군수가 집행한 업무추진비로 전곡에서 모인 장흥중·고 7·6회 동창회원과 지인 등 30여명에게 80만원의 식

사비와 군 소유버스를 이용한 버스투어, 군이 운영하는 우드랜드 게스트하우스 숙박 등 300여만원에 상당하는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전남도선관위 주도로 1개월여동안 진행된 이 사건은 군수 업무추진비가 의례적인 개념으로 집행돼 왔다는 군 당국의 입장과 각종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집행 기준을 뛰어넘어 군민과 연고가 있는 동창회원으로 인간적 관계상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관위측 판단이 맞서면서 적법성 논란이 벌어졌다.

한편 일선 지자체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업무추진비 집행을 싸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정읍시, 건축민원 해결 '건축상담 서비스' 창구 운영

정읍시는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민원과에 건축 상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상담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정읍지회 소속 건축사와 함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건축사가 직접 관계법규 설명과 시공요령 등 설계단계부터 완공까지의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적법화 추진절차, 방법, 인허가 서류 제출 등에 대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건축 상담서비스와 함께 하반기 건축 행정 건설화 대책의 일환으로 위반 건축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문화원 '연재 송병선 선생 위정척사운동' 심포지엄

12일 군산리츠프라자호텔

군산문화원은 12일 오후 3시부터 군산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연재 송병선 선생의 위정척사 운동과 유적지 관리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재 선생의 위정척사 운동과 순국을 재조명하고, 임피면에 소재한 유적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하고 군산 정신을 찾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서 김중수 군산대 교수가 제1주제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순국', 최규홍 군장대 석좌교수가 제2주제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임피 유적지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진원 군산문화원장을 좌장으로 황병근 성균관부관장, 고하영 군산문화원이사, 김진돈 전북문화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진원 군산문화원 원장은 "군산지역에 선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고심하셨던 연재 선생의 생애를 살펴보고 묻혀있는 이야기를 발굴 토론하는 자리"라며 "선생님의 원혼을 재조명함으로써 군산 시민 모두 하나 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연재 송병선 선생은 1836년 대전 회덕에서 출생했으며 우암 송시열(宋時烈)의 9세손이다.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위협하여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두 차례의 '청토흥적소(請討興賊疏)'를 올렸다.

또 그해 음력 12월 30일 국권을 강탈당한 데 대한 통분으로 황제와 국민과 유생들에게 을사늑약 파기 및 (義)로써 끝기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겨 놓고 세 차례에 걸쳐 다량의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지난 6일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사과, 배 국내육성품종 품질 평가회에서 남원시 고랭지 사과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남원시 제공)

남원 고랭지 사과 '국내육성품종' 우수상

농업진흥청장상 수상

남원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고랭지 사과가 재배한 사과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 고랭지 사과는 올해 잦은 냉해와 폭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농업인들에 노력에 의해 명성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번 품질 평가회는 사과와 배의 국내육성품종 확산과 우수성홍보 및 성과공유를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사과 품종 '감홍', '황옥', '루비에스', '피크닉'과 배 품종 '추황배', '황금배' 등을 재배하는 전국 16개 시군 28명의 농업인들

이 참여했다.

올해 평가에서 남원시는 운봉읍 윤 준씨가 재배한 사과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환중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뛰어난 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 확대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겨울철 재난대비 24시간 상황근무체계 유지

고창군은 주민 안전사고에 대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오는 2019년 3월 15일까지 운영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대책본부는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따른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비한다.

군은 유관기관별로 편성된 겨울철 재난대책 실무반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 5개반을 편성해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4개 읍·면과 농수축산 관련 부서와 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방침이다.

군은 제설 취약구간을 지정해 견인차량을 배치하고 인명피해 우려시설물과 터널, 고립마을 등 재난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문의. 010-6834-7400